

‘겨울진미’ 보성 참꼬막 “보기 어렵네”

올 생산량 27.2t 작년 절반 수준...어획량 급감 대책 마련 시급 “폐사·남획 어족관리 역부족...인공 종묘 대량생산 체계 갖춰야”

겨울의 진미로 꼽히는 보성 참꼬막(사진)의 어획량이 매년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할 실정이다.

3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참꼬막의 생산량은 27.2t으로 지난해 53t과 비교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생산량을 보면 2016년 74.2t에서 지난해 53t, 올해 27.2t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생산량이 줄면서 참꼬막은 1kg에 2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양이 적어 일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참꼬막 생산이 급격하게 줄자 보성군은

작년에 1억9000만원을 들여 꼬막 폐사 원인 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조사 용역은 5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는 2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종패를 뿌려 자원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갯벌의 상층부에 주로 서식하는 참꼬막의 특성상 폐사율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성군은 벌교읍에 인공배양장을 만들어 종패를 생산하고 어미 꼬막을 관리하는 등 어족관리에 나섰다. 아직 큰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참꼬막은 산란 이후 어른 꼬막으로 성장하려면 3~4년이나 걸리기 때문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환경 변화나 남획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참꼬막 생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은

조사 용역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꼬막의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장동범(64) 벌교 하장 어촌계장은 “꼬막 산지로서 명맥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대량 생산이 안 돼 아쉽다”며 “종 보호를 위해 어미 꼬막을 잡지 않는 등 어민들도 노력하는데 자원이 고갈될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80년대 후반 꼬막 자원이 고갈돼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했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성 벌교의 참꼬막 어장 면적은 685ha이며 어장은 35곳에 이른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례군, ‘마을순회방문’ 호응

군수가 직접 매주 마을 주민 만나 불편함 등 들어

구례군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순회방문’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마을순회방문은 지난 10월4일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위해 매주 1회씩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맘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김순호 군수는 그동안 8개 읍·면별 2개 마을씩 총 16곳을 방문해 주민들과 마주보고 앉아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눴다.

참석한 주민들은 “대화로 모든 건의사항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생활의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주

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군수는 “민선7기 혁신적 비전인 케어이탈가 설치와 자연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 등 구례발전을 위한 정책에 동참해 달라”며 “군민 모두 화합해 행복한 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군수는 2019년에도 지역 69개 법정리를 모두 방문해 주민과 맘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마을순회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송귀군 고흥군수가 지난달 29일 도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도양 일반산업단지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10년 ‘지지부진’ 도양 산단 조성사업 고흥군, 주민 의견에 맞긴다

고흥군은 지난 1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개 여부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양산단 조성은 군이 2008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추진했던 사업이다. 122만㎡의 임해산단과 145만㎡의 배후단지(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완충녹지) 등 267만㎡(81만평) 규모다.

이 사업은 군이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며 10년의 세월을 보냈고, 급기야 공유수면매립 면허기간도 지난 5월14일자로 실효됐다.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봉암리 일대 5개 마을 주민들은 산단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일자리와 인구유입 등을 이유로 조속한 사업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고흥군은 지난달 29일 도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봉암리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귀군 고흥군수는 “산단을 다시 추진하든, 해제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며 “찬반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5개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군 “모든 발주사업 주민이 현장 감독으로 참여”

공사 감독 임명 때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고흥군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주민 대표가 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

고흥군은 사업 현장의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할 때, 현장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함께 위촉하기로 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간이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공사 등 10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3000만원 미만 사업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이장)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한다.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설계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해 주민 건의 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향

을 받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해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에서 해촉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 대표가 주민 참여 감독자로 임명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의 해소는 물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군, 상수도현대화 사업 5년간 200억 투입

곡성군은 2019년부터 5년간 200억원 을 투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 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위탁해 노후 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곡성군은 관로 노후화와 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54%대의 낮은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수수량

중 유수율)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보였다.

군은 이번 사업구역인 곡성읍, 석곡, 옥곡 3개 권역의 노후 수도관 정비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관 녹물, 누수 등으로 인한 단수, 상수도 미공급 등의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새는 수도물을 줄여 약 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곡성군,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전방지 대책 강화

곡성군은 올 겨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군 상수도사업소에서 동파 사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곡성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 동파방지 및 긴급 복구를 위해 상수도 기동서비스 2개반 8명과 상수도 긴급 복구 3개 대형업체로 구성된 동파방지 대책반을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비상체계를 구축해 긴급 안전점검 및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동파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해 보존재를 설치하고, 유사 시 동절기 자체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동파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계량기 교체 및 해빙조치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이와함께 마을 엠프방송과 수도요금 고지서 등 각종 홍보매체에 홍보문을 첨부하는 등 동파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